

#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찬송 시

글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대표

##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가 개역개정 31장)

주일 아침 강대에 흰 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꽃꽂이를 볼 때면 어제 이곳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있었던 것을 짐작하곤 한다. 그러나 유난히 아름답고 빛나는 장식임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아무리 맛있고 먹음직한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물린 상이라면 꺼림직 함이 당연하지 않겠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것을 원하신다. 성경에 “너희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 갈 것이요 (레 23:10)”,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레 27:26)” 했듯이 결혼식에 사용했던 꽃이 아무리 보기에 좋고 버리기에 아깝다고 하여도 그대로 경건한 예배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꽃을 재활용하여 그날 예배에 맞는 준비된 다른 꽃들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으로 장식한다면 모르되...

오래전 교계신문에서 ‘2등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자칫 우리들 단엔 하나님을 1등자리에 모신다곤 하지만 순간마다 끼어드는 하찮은 것들로 인해 2등으로, 아니 결국은 꼴등으로 보내 드리고 만다. 예배에 참석하리라 굳게 다짐해 놓고 다른 약속을 잡는다든지, 기도 중에 휴대전화를 받는 다든지, 그러다보면 하나님은 어느새 저 뒤편에 밀려나 있다.

이 찬송가의 작가인 크로스비(F.J.Crosby, 1820-1915)가 평생 앓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로 지냈음에도 이처럼 은혜로운 찬송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영이 깨끗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고백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비장애인들처럼 세상 것에 한눈팔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archangels)’도 보고 ‘복되신 구세주 예수’도 본다. 관련 성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시편146편 1,2절의 말씀은 크로스비 자신이 최초의 원고에 가사와 함께 적었다.

찬송가 오른 쪽 위편의 고딕체로 쓰인 JOYFUL SONG은 알렌(C.G.Allen, 1838-1878)이 작곡한 멜로디의 이름으로 영어 원문 후렴의 마지막 가사인 ‘ever in joyful song’에서 딴 것이며, 곡명 옆의 IRREG.는 가사의 운율이 불규칙적(irregular)으로 되어있다는 뜻이다.

작사, 작곡자 옆의 1869년은 이 곡을 처음 발표한 주일학교노래집(Bright Jewels)의 출판년도이며, 우리나라엔 ‘찬성시’(1898)에 베어드(A.A.Baird)선교사의 번역으로 처음 실렸다. 처음부터 “찬양하라”의 4운율로 만들어져 지금껏 부르지만 영어 원문은 “Praise Him! Praise him!”의 2,2운율로 되어있어 후렴의 맨 마지막 가사처럼 모두 “찬양! 찬양!”으로 만들었다면 더 음악적이며 시적인 감흥이 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